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기사를 고치고 돈도 배상하라는 요구, 정정과 금전 청구를 함께 막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부 방어

정정·손해배상 사건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 정정,손해배상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장 서명/인도
1 / 23

1 / 23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정정과 손해배상이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언론사는 기사 내용에 관한 주장과 배상 책임을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정정·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한 결과로, 형사 명예훼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언론 보도 분쟁은 기사 한 건에서 출발하더라도 금전 청구와 정정 요구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비판과 법원이 판단할 청구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울은 언론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맞서 민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응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문제 삼고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정정이나 배상 의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구 내용과 그 근거를 재판의 쟁점으로 나누어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판결의 사건명에 정정과 손해배상이 함께 기재된 분쟁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요구를 하나의 막연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소송에서 제기된 청구 자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최종 판결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응의 핵심

보도 한 건에 쏟아진 요구, 청구마다 제대로 맞서야 합니다.

보도 한 건에 쏟아진 요구, 청구마다 제대로 맞서야 합니다.

정정과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언론사. 해울은 청구 전부를 막았습니다.

- 기사 정정과 손해배상 소장을 함께 받았다면?
- 보도 내용을 바꾸라는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면?
- 표현 내용과 배상 책임을 나누어 다뤄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맞서 언론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정정·손해배상 사건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절차를 수행하고,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보도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서 방어한 사례입니다.

언론사는 보도 업무를 이어가면서 소송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분쟁을 키우는 표현보다 법원에서 다룰 청구와 책임 범위를 살피는 대응입니다. 해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정정·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고, 재판을 통해 법적 부담을 방어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해율은 언론사 측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청구 전부를 방어하였습니다.

보도와 관련한 분쟁은 외부의 문제 제기 자체와 소송상 책임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정정과 배상을 요구받은 언론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리할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기사와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의뢰인의 부담을 다루는 첫 단계가 됩니다.

결과의 핵심

정정과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언론사. 해율은 청구 전부를 막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정정과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언론사. 해율은 청구 전부를 막았습니다.

- 정정 요구와 금전 지급 요구를 함께 방어해야 한다면?
- 보도와 실제 손해 사이의 관계를 다투어야 한다면?
- 소장을 받고 답변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